

“새 경제 패러다임 완성해 삶 변화해야”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내부망에 글 올려... “활력→심리→민생” 선순환 만들어야

정부 시무식이 열리면서 공식적인 새해 업무가 시작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운영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올해에는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내부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직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눈앞에 놓인 팍팍한 민생의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올해에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운을

꿨다. 이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켜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끌어내야 할 때”라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활력→심리→민생’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일 잘하고 소통 잘하는 기재부가 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상충되는 정책이나 부처 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역량을 키우고 발휘해야 한다”며 “전(全) 경제 부처가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른 부처와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태도도 주문했다. 그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파악하고 한발 앞서 대응책을 마련하자”며 “기재부가 앞장서 생각하고 움직여야 경제 정책들이 적시에 조율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개인’과 ‘조직’이 성공하려면 스스로에게 깊은 생각을 강요해야 한다는 찰스 두히그(Charles Duhigg) 뉴욕타임스 기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각자 소임에

대해선 내가 최종 의사결정자란 자세로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인사 시스템 확립과 함께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근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간부들이 지시만 하고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직원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도 다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정부 시무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올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께엔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다.

/뉴스시스

김경일 전주우체국장 취임

전주우체국 제43대 김경일 국장 취임식이 2일 전 직원과 관내 우체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경일 국장은 “122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북 1번지우체국, 전주우체국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즐겁게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 및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우체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 농어촌공사, 황금돼지 기운 받아 새해 업무 본격 시작

공공이익·혁신성장 실현 각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과 함께 2019년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무식에서는 2018년 12월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임용장 수여와 2018년도 유공직원의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작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을 새롭게 맞이했다.

또한, 본부 전직원은 ‘인권경영, 갑질 근절 선언문’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와 존중의무를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2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다짐했다.

한편, 박종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농어촌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중요한 공간으로서 저수지, 방조제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을 특별히 관리하고 열린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는 한해가 되겠다”며, “2019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농·어업인들의 안전영농과 풍요로운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혁신심사위 구성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령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같은날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및 유예를 뜻한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

를 제공해야 했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신청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외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 부위원장, 혁신금융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핀테크 지원센터)의 장이 포함된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또 혁신금융서비스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용자로 부터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

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했으며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에 사유와 증빙자료, 손해배상계획서 등도 제출토록 했다.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릴 의무도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은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출연금·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 규정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시행 이전인 이달부터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혁신금융심사위도 3월말까지 미리 구성해 운영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과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 정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2월말 발표하고 이달 중에 2019년도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도 공개한다.

이밖에도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5월말 개최하고 1분기 중으로 국내 핀테크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뉴스시스



전북지방우정청이 2일 대회의실에서 총괄우체국장, 우정청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대 전성무 전북지방우정청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변화·혁신, 새롭고 밝은 미래 개척

제34대 전성무 전북지방우정청장 취임

전북지방우정청은 2일 대회의실에서 총괄우체국장, 우정청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대 전성무 전북지방우정청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성무 청장은 “맛과 멋, 전통의 문화가 넘쳐난 인심과 함께 어우러진 예술의 고장 전북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고 밝은 전북우정청의 미래를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중심, 고객중심 경영으로 전북우정청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특산물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전북우정청은 다양한 사

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성무청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책대학원을 졸업하여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더불어, 전 청장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장, 경영기획실 경영총괄과장, 홍보담당관, 제주지방우정청장,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뛰어난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이 나왔다.

한편, 전임 김성철 청장은 부산지방우정청장으로 이동했다.

/김영태 기자

“창립 50주년 넘어 100년 은행으로 도약 할 것”

전북은행, 시무식서 포부 밝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일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시무식을 했다고 밝혔다.

임용택 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전북은행의 계획과 포부를 밝히고 도전,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용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선도자로서 우리사회에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전달했고 차별화된 소매금융 전략을 통해 창립 이래 최초로 1,000억 수준의 당기순이익 달성과 건전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뤄낸 노력의 산물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 은행장은 “사회에 기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회를 주는 디딤돌이 되자”고 당부하며 “새해에는 불안한 국내·외 경제를 극복하고 창립 50주년을 넘어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적십자회비 참여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8.12.1 ~ 2019.1.31 (연중모금)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QR코드	 편의점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2018년 적십자회비, 이렇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14억2천만원	 재난 구호 활동 약 1억3천만원	 안전 지식 보급 약 6억3천만원
---	---	---

*정기후원 및 단체 기부금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원문의 063)280-5821~2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